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분기와 그 의미

백 은 철 (전북대)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4. 논증적 글쓰기 교육 분기의
함의와 난점 |
| 2. 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논리학적
기반 | 5. 맺음말 |
| 3. 비형식적 논리학과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분기 | |

국문초록

2000년대 초반 첨단 지식의 소재가 대학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전공 지식의 유효 수명이 짧아지면서 대학은 타개책의 하나로 교양교육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의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활성화·전문화되었고 다양한 양태로 분화·발전하였다.

그런데 대학 글쓰기가 분화·발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논증적 글쓰기가 대학 글쓰기에서 강화된 이유는 논증적 글쓰기가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학문의 기초가 되는 기본 능력들을 키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논증적 글쓰기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글쓰기 교재에 실린 ‘논증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다룬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논증적 글쓰기의 교과 내용을 크게 변화시킨 몇 대

학의 개편 교재를 중심으로, 논증적 글쓰기 교과 내용의 구체적 변화 내용과 그 변화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논증 모형, 형식 논리학, 비형식 논리학, 논증적 글쓰기, 토론

1. 머리말

많은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주요 교양과목으로 진행한다. 글쓰기 수업은 종래의 읽기 중심의 ‘대학국어’ 수업이 전환된 것으로, 이러한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지식사회의 지형의 변화와 맞물려 있다. 2000년대 초반 첨단 지식의 중심이 대학에서 기업으로 넘어가고, 전공 지식의 유효 수명 짧아지면서 대학은 변화의 방법으로 교양교육에 좀 더 집중하게 된 것이다.¹⁾ 이 과정에서 글쓰기는 하나의 교과목이 아니라, 담화 공동체 혹은 학문의 바탕이 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인식되면서 보다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었다.

글쓰기 교과의 세부 운용 내용은 대학마다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글쓰기 교과를 담당하는 구성원들이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그 내용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많은 대학에서 글쓰기를 3학점 단일 수업으로 설강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기초 글쓰기’와 ‘심화·연계 글쓰기’(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로 나누어 단계적·절차적 수업을 진행한다. 또 일부 학교에서는 ‘읽기와 쓰기를 연계’(서강대, 이화여대)한 활동을 강화하기도 하고, 토론과 쓰기(숙명여대, 성균관대)를 강화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²⁾

1) 구자황, 『대학글쓰기 교육의 반성과 전망』, 『반교어문연구』 제36집, 반교어문학회, 2014, 164~165면.

2) 구자황, 『학술적 담화 공동체의 삶과 글쓰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82~83면.

그런데 이와 같은 대학 글쓰기 양태의 다양한 분화·발전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논증적 글쓰기’ 교육이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다. “학술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논변적 글쓰기’, ‘비판적 글쓰기’ 등의 명칭을 단 글쓰기 강좌들이 기존에 글쓰기 교육을 담당해 온 ‘대학 국어작문’ 강좌를 대체한 지 오래되었고”, 또 “‘인문학 글쓰기’, ‘사회과학 글쓰기’, ‘이공계 글쓰기’와 같은 학문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공별’ 글쓰기 교육”도 여러 대학에서 제도화 되고 가고 있는 추세이다.”³⁾ 이러한 대학 글쓰기의 분화·전문화 과정은 대학 글쓰기 교육이 ‘논증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한 ‘학술적 글쓰기’에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징하게 보여준다.

그런데 논증적 글쓰기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글쓰기 교재에 실린 ‘논증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교과 내용을 다룬 연구가 없었다. 그간 논증적 글쓰기와 관련된 논문은 ‘논술 관련 논문’, ‘논리학 모델의 글쓰기적 적용에 관한 논문’, ‘논증적 글쓰기의 필요성 내지 방향성에 대한 논문’ 등으로, 교재의 구체적인 내용과는 거리가 있는 연구 논문들이다.⁴⁾ 논증적 글쓰기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글쓰기 수업을 위해서라도 논증적 글쓰기의 구체적인 구성 내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최근 개편된 교재들 중에서 논증적 글쓰기 부분, 특히 논증 모형을 크게 변화시킨 교재(서울대, 연세대, 전북대)를 중심으로 논증 모형의 구체적 변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새롭게 개편된 이들 교재는 논증 모형이 바뀌면서 기존과 전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논증적 글쓰기 장이 구성되었다. 이들의 변화 내용과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기존 논증적 글쓰기의 논리학적 바탕과 한계, 새로운 논증적 글쓰기의 논리학적 바탕과 의미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아가 이들 개편 교

3) 김병구,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27, 2009, 6면.

4) 대표적인 연구들로 논술 관련 논문은 이광모(2008), 논리학 모델의 글쓰기적 적용에 대한 논문은 현남숙(2010), 김미선(2012), 김은정(2015), 논증적 글쓰기의 필요성 내지 방향성에 대한 논문은 홍병선(2008) 김병구(2009) 등의 연구가 있다.

재들이 보여주는 차이 확인을 통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논증 글쓰기 교육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2. 논증적 글쓰기 교육과 논리학적 기반

“논증적 글쓰기는 어떤 문제 사태에 대한 참신하고 개성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글쓰기의 한 방법이다.⁵⁾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는 독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임스 크로스 화이트(James Cross white)는 글쓰기를 수사학적 지평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어적 의사소통행위 이라고 말했는데,⁶⁾ 그의 말에 기대보면 논증적 글쓰기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타인과 주고받는 문어적인 의사소통의 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논리성과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논증적 글쓰기는 특히 대학 글쓰기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논증적 글쓰기가 설득의 논리에 기초한 공적인 글쓰기라는 점에서, 그것이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어적 의사소통 행위라는 점에서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문제해결 능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키울 수 있는 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전문적인 분과 영역으로 나뉘어진 기존의 대학 교육 시스템” 안에서 학문의 기초가 되는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을 효과적으로 교육하기는 매우 어렵다.⁷⁾

논증적 글쓰기가 갖는 이와 같은 중요성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는 글쓰기 수업에서 가르쳐야 하는 중요 항목으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왔다. 대학에서

5) 최상민,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과 평가』, 『현대문학이론연구』 3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 350면.

6) James Crosswhite, 오형엽 옮김, 『이성의 수사학』,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1, x 쪽.

7) 김병구, 앞의 논문, 11~12면.

진행하는 글쓰기는 대부분 ‘과정 중심적 글쓰기’ 교육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 중심 글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글쓰기의 절차(계획하기→작성하기→수정하기)를 학습한 후 여러 편의 글을 쓰게 된다.⁸⁾ 이 과정에서 여러 성격의 글을 완성하게 되는데 논증적 글쓰기가 중요한 꼭지로 지속적으로 설정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가 살펴볼 서울대, 연세대, 전북대의 개편 전 교재 뿐만 아니라, 기존 고려대, 경북대, 전남대 등의 교재들도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⁹⁾

이들 교재들을 살펴보면 논증적 글쓰기의 세부 구성은 사뭇 다르지만, 논증적 글쓰기의 중심이 되는 ‘논증’ 설명 내용은 유사하다. 기존 교재에서 논증(argument)은 일반적으로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술 방법’ 또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사고의 구조물’이라고 정의한다.¹⁰⁾ 그리고 이런 정의를 제시한 후에 논증을 할 때에는 ‘주장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런 주장은 합당한 논거와 추론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와 같은 설명을 덧붙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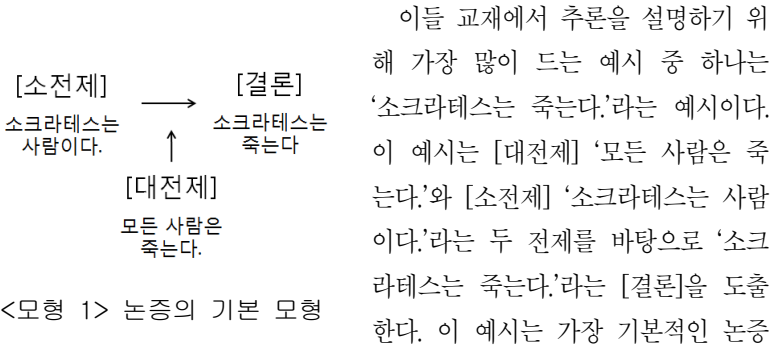
기존 글쓰기 교재에서는 이러한 논증의 정의를 바탕으로 ‘논증 요소’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다. 이들 교재에서 논증의 기본 요소로 설정하는 것은 크게 명제, 논거, 추론 세 가지이다. 명제는 주장의 언어적 표현으로 사실에 부합

8) ‘과정 중심의 글쓰기’는 기존의 문식력을 높이는 교수자 중심의 과정에서 벗어나, 한 편의 글이 완성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글쓰기 수업 방식이다. ‘과정 중심 글쓰기’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논문을 참고할 것.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과 과정 중심 방법의 적용』, 『현대문학의 연구』 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9)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정희모 외, 『대학 글쓰기』, 삼인, 2008.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글쓰기의 기초와 실제』, 태학사, 2013. 고려대 사고와 표현 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2014. 경북대, 『사회과학 글쓰기』, 경북대학교 출판부, 2015. 전남대학교 기초교육원, 『글쓰기』, 전남대학교 출판부, 2012.

10) 논리학에서는 ‘전제와 결론으로 이루어진 명제들 관계의 언어적 표현’을 논증이라 한다. 또 이런 논증을 그 사고 과정인 ‘추론’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글쓰기 교재들은 이러한 논리학적 정의를 좀 더 느슨하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Wesley C. Salmon, Logic 3판, Prentice Hall, 1984. 광장재 역, 『논리학』, 박영사, 2004, 5면.

되는 ‘사실명제’,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에 근거한 ‘가치명제’, 어떤 주장이나 결정의 타당성을 내세우는 ‘정책명제’ 등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논거의 경우 객관적 사실에 바탕을 둔 사실논거와 해당 전문가나 권위자의 의견에 바탕을 둔 소견논거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리고 논거에서 주장으로 나아가는 추론의 방향과 성격을 기준으로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을 설명한다.¹¹⁾



형태로, 연역추론 형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고전적인 삼단논법이다. 이 삼단논법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이 논증 모형에서 결론은 주장에 해당하며 대전제는 근거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전제와 결론의 논리적 관계, 즉 건전성(=참인 전제+타당성)을 바탕으로 좋은 논증과 그렇지 않은 논증이 나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교재들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논증 설명이 논증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규범화된 담화 현상 안에서 논증은 크게 네 영역으로 나뉜다. 첫 번째 영역은 전제와 결론 사이에 존재하는 추론의 형식과 질에 주된 관심을 갖는 ‘형식 논리학적 논증’ 영역이다. 두 번째 영역은 화자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중들에게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에 관심을 갖는 ‘수사학적 논증’ 영역이다. 세 번째 영역은 어떤 조건이나 방법 하에서 현상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관찰과 실험에 집중하는 ‘과학적 논증’ 영역이다. 마지막 네 번째 영역은 논리학

11)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글쓰기 기초와 실제』, 태학사, 2013, 95~97쪽.
서울대학교 대학국어편찬위원회, 『대학국어』, 서울대학교 출판부, 288~296쪽.

적 논증이 목표로 하는 절대적 진리가 아닌 수용 가능한 논리의 생산에 관심을 갖는 ‘비형식적 논증’ 영역이다.¹²⁾

이러한 논증의 영역 구분에 비춰보면 기존 교재들의 논증적 글쓰기 부분은 형식 논리학적 논증 이론에 기초한 설명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존 교재의 논증적 글쓰기가 독자를 중요시하는 수사학적 측면이나 대화적 측면보다도, 논리학의 그것처럼 전제와 결론 사이의 추론의 형식과 건전성 평가에 주된 관심을 갖기 때문이다. 또 기존 글쓰기 교재들은 논증하는 방법을 대개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이러한 추론의 방법과 설명 방식도 형식 논리학의 설명 방식과 방법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그런데 간단하고 일견 명쾌해 보이는 형식 논리학 바탕의 논증 글쓰기는 꽤 여러 난점을 안고 있다. 가장 먼저 거론 될 수 있는 부분은 형식 논리학적 논증 글쓰기가 너무 형식적 타당성 측면에 기울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살펴 보았지만, 기존 교재에서 올바른 논증이란 전제가 결론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고 논증을 말한다. 이때 전제는 참이어야 하고(내용적 조건), 논리적 형식은 타당해야 한다(형식적 조건). 그러나 현실 세계의 일들은 형식 논리학이 표현하려고 하는 간단한 논리 구조로 해결되지 않는다. ‘모든 살인은 옳지 않다. 안락사는 살인이다. 따라서 안락사 옳지 않다.’와 같은 예시를 보자. 이 경우 전제가 참이면 반드시 결론도 참이 되는 형식이다. 하지만 현실 공간에서 ‘안락사는 살인이다’와 같은 전제를 쉽게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있는 아니다. 즉, 현실 공간에서는 앞선 예에서처럼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없는 문제, 가정, 사건, 이견이 존재한다. 삼단논법의 추론 구조는 전제(내용적 조건)를 참, 거짓으로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유용한 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현실 공간의 문제에서는 유용하지 않은 틀이 될 수도 있다.

12) 이영호, 『학습 논술 교육 연구: 학습 과정에서의 논증 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2, 15~20면. 크리스티안 플라탄/장인봉 옮김, 『논증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180~185면.

형식 논리학적 논증 글쓰기의 또 다른 난점은 추론의 방법에서 기인한다. 형식 논리학에서 제시하는 귀납추론과 연역추론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¹³⁾ 귀납추론은 구체적인 사실에서 보편적인 결론을, 연역추론은 보편적인 법칙에서 구체적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현실 공간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지 않는다. 현실 공간에서는 보통 우리가 어떤 주장(결론)을 내세울 때는 해결하고 싶은 무엇인가가 있을 때이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잠정적 해법을 세우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가면서 자신의 생각을 완성해 간다. 이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형식 논리학의 추론 방법들은 논증적 글쓰기 과정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이상적인 틀이거나 험거운 틀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교재의 논증적 글쓰기가 갖는 또 다른 문제는 논증적 글쓰기 내용이 논증의 형식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 자체를 협소하게 이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이다. 논증은 논증적 글쓰기의 뼈대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논증 글쓰기가 논증을 구성하는 차원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 능력은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단순히 문자 언어로 표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용한 지식과 생각을 새롭게 창출해내는 지적 생산 능력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¹⁴⁾ 즉, 글쓰기는 비판적 사고를 바탕으로 추론하고 판단하는 사고의 전 과정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사유의 과정은 독단적인 과정이 아니라, 타인과 교감하는 대화의 과정이다. 논증적 글쓰기를 ‘공적 글쓰기’라고 언급하는 이유

13)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에 대한 한계와 비판은 윌리엄스·콜롬의 견해를 참고하였다. 윌리엄스와 콜롬은 형식논리학의 추론 방식인 연역추론과 귀납추론이 우리의 생각 방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가설을 바탕으로 추론을 전개하는 ‘가추추론(abductive reasoning)’을 제시하고 있다. 조셉 윌리엄스(J. M. Williams)·콜롬(G. G. Colomb), 윤영삼 옮김,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8, 314~318면.

14) 이국환, 『전통적 교양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연구』, 『석당논총』 제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146면.

도 그 바탕에 이미 타인과 함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공적인 무엇인가를 설정해 두고 있기 때문이다.¹⁵⁾ 그러나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 즉 논증적 글쓰기를 단순하게 명제, 논거, 추론으로 제시하고 있는 형식논리학적 논증 글쓰기에서는 공적 사건이나 현상을 마름질 하는 눈, 자신의 생각을 버리어 내는 과정, 그리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시간들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인다.

형식 논리학에 기초한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 교육은 너무 강한 논리학적 형식과 법칙의 영역으로 ‘논증적 글쓰기’를 이끌었다. 논리적 형식과 법칙이 글쓰기에서 강조될수록 논리학적 형식과 법칙은 글쓰기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이 되지 못한다. 형식 논리학적 논증 글쓰기가 그 명확성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글쓰기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이다. 이런 난감한 부분들이 새롭게 개편된 글쓰기 교재들에서 어느 정도 해결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을 바꾸어 새롭게 개편된 교재의 내용을 살펴보자. 그러나 개편 교재 내용을 살피기 위해서는 논증 이론 속으로 몇 걸음 더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비형식 논리학과 논증적 글쓰기 교육의 분기

이상화된 논증, 명제적 관점에만 초점을 맞춘 형식 논증은 신논증이론가들이라 할 수 있는 신수사학자들에 의해 그 방향이 크게 바뀐다. 카임 페렐만(C. Perelman)과 올브레히츠-티테카(L. Olbrechts-Tyteca), 툴민(S. E. Toulmin)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신수사학자들은 논리적인 논증의 기계적 합리성과 수사학자들의 상황 지향적 수준에서 벗어나, 일상의 수사학을 복원하려고 노력했다.¹⁶⁾ 페렐만은 “논증이란 ‘어떤 주장에 대해 사람들의 마음을 동

15) 김병구, 앞의 논문, 9면.

16) 신수사학은 현대에 들어와 등장하는데 페렐만의 표현을 빌리면 “신수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 변증론, 수사학을 통합하는 분야”이다(하병학, 2005). 신

의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이야기 기술’에 대한 연구”라고 하면서 명증성이나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논리와는 거리가 있는 새로운 논증, 즉 비형식적 논증이라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¹⁷⁾

신수사학자들에 의해 열리게 된 비형식적 논증은 기계적 합리성이 아니라 수용 가능한 논리의 생산을 추구한다. “비형식적 논증에 의한 해결은 이에 이르는 길이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제안된 결론만이 진리라고 여기지도 않는다.”¹⁸⁾ 즉 비형식적 논증은 명증적인 전제에서 출발하여 필연적인 진리에 도달하는 논리학적 논증을 벗어나 청자가 개인적인 진리에 도달하도록 하는 설득을 주목하는 것이다.¹⁹⁾ 따라서 기계적 합리성에서 벗어나려는 비형식적 논리학은 명제들의 구조물로서의 논증(argument)이 아닌, 화자와 청자 사이에서 펼쳐지는 논증 활동(argumentation)에 관심을 갖게 된다.²⁰⁾

비형식적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가 톨민의 논증 모형이다. 형식 논증은 결론의 내용이 전제에 포함되어 있는 논증이었다. 톨민의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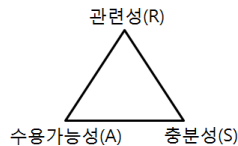
수사학의 이런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논증과 수사학의 굴곡진 역사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논증과 수사학은 원래 한 몸이었는데, 로마제정 말기부터 수사학은 순수하게 문체이론이 되어버리고, 논증 부분은 그 중요성이 점점 커져 갔다. 문체이론으로 쇠퇴한 수사학은 신수사학자들(특히, 카임 페렐만과 올브레히츠-티테카)에 의해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게 된다. 수사학 쇠퇴와 부활에 대해서는,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 장혜영 옮김, 『논증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7~77면을 참고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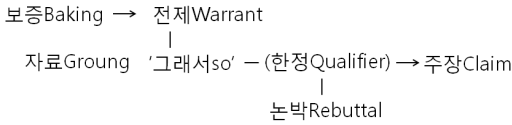
17)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 장혜영 옮김, 위의 책, 40면.

18) 이영호, 앞의 논문, 20면.

19) 하병학, 『논증과 권위』, 『철학탐구』 1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5, 332면.

20) 따라서 논증의 평가 개념도 비형식적 논증에서는 그 기준이 달라진다. 옳은 논증의 기준이 형식논리학에서 기준으로 삼던 타당성이 아니라 건전성, 즉 얼마나 더 합리적인 논증인가가 그 기준이 된다. 비형식적 논증의 가장 대표적인 논증 평가의 틀은 오른쪽에 보이는 존슨-블레어의 ‘RSA-삼각형’이다. 관련성과 충분성은 전제와 결론의 지지 관계에 관한 것이고, 수용가능성은 전제에 관한 것이다. (배한식, 『논증과 논증행위』, 『철학사상』,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11, 164~16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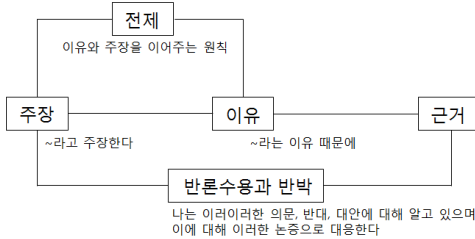


은 '언역=타당=보편적=형식적=분석적'의 연결을 끊는 것이었다.²¹⁾ 틀민이 보기에 전통적인 형식 논리학은 단순하고

<모형 2> 틀민의 논증 모형

너무 경직된 모델이어서 현실 공간의 역동적 문제들을 다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틀민이 보기에 논증의 합리성은 형식 논리학에서 제시하는 논증의 타당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논증을 만들어가는 합리적 과정 그 자체에 있었다. 그 과정이란 다음과 같다. 어떤 자료로부터 하나의 주장을 이끌어낸다. 그리고 그 주장을 나오게끔 하는 전제를 마련한다. 그런데 그 전제에 예외 혹은 반증이 있을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증을 찾거나 주장의 확실성에 제한을 둔다. 형식 논리학의 “타당한 논증 형식이 준기하학적인 것”이라면 이러한 틀민의 논증 모형은 “절차적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윌리엄스(J. M. Williams)와 콜럼(G. G. Colomb)은 비형식 논리학자 틀민의



의 논증 모형을 다음과 같은 단순한 모델로 정리·제시했다.²³⁾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주장(claim)은 이유로 뒷받침하는 모든 진술이고, 이유(reason)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이다. 주장은 주요주장과 하위주장으로 나뉘는

<모형 3> 윌리엄스와 콜럼의 논증 모형

데, 주요주장은 전체 논증의 주요 핵심(논제, thesis)이며, 하위주장은 주요주

21) 배한식, 위의 논문, 158면.

22) 배한식, 위의 논문, 161면.

23) 조셉 윌리엄스(J. M. Williams)·콜럼(G. G. Colomb), 운영삼 옮김, 『논증의 탄생』, 흥문관, 2008, 60~102면.

장이 아닌 모든 주장을 말한다. 주장과 이유만 있으면 가장 단순한 논증이 완성되지만 논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두 개의 닳을 내려야 한다. 하나는 사실이라는 근거의 닳이고, 논증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전제라는 닳도 내려야 한다. 이 네 가지 요소(주장, 이유, 근거, 전제)가 윌리엄스·콜럼이 정리한 논증 모형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이다.²⁴⁾

이러한 비형식적 논증은 형식 논리학적 논증과는 달리, 여러 현실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주체의 다양한 해석과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형식적 논증 자체가 타당성보다는 건전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성에 초점이 놓여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유의 결과물을 얻는 글쓰기에는 형식 논리학적 논증보다는 이러한 비형식적 논증 모형이 조금 더 유용할 글쓰기 틀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비형식적 논증 모형은 글쓰기 교수자들에게 의해 종종 시론적으로 글쓰기 수업에 활용되고 있다.²⁵⁾

최근에 개편된 서울대·연세대·전북대 글쓰기 교재의 논증적 글쓰기 부분 역시 이러한 비형식 논리학의 연장선상 위에 놓여 있다.²⁶⁾ 최근 개편된 전북대 『사회계 글쓰기』, 서울대 『글쓰기와 기초』, 연세대 『현대 사회와 비판적 글쓰기』 교재의 논증적 글쓰기 설명 방식과 내용은 개편 전 내용과 분명

24) 툴민 논증 모형과 대별되는 윌리엄스·콜럼 논증 모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툴민의 논증 모형에서 화살표를 제거했다. 대부분의 논증은 문제, 해법, 주장이 먼저 나오고, 자료·전제·논박이 그 다음에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둘째, 툴민이 분야마다 논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려 했던 ‘보증’을 큰 논증 속에 있는 작은 논증으로 편입, 보증을 생략했다. 셋째, 한정어의 의미를 지니는 문장요소들이 논증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판단 한정사도 생략했다. 넷째, 자료를 논증에 논리적 구조를 제공하는 이유와 논증의 구조가 바로 설 수 있는 사실적 토대인 근거로 나누었다. 조셉 윌리엄스·콜럼, 윤영삼 옮김, 위의 책, 513~521면.

25) 각주 2)에서 언급한 현남숙(2010), 김미선(2012), 김은정(2015)의 논문들이 이런 시도를 보여주는 연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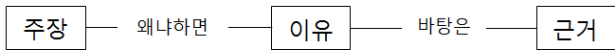
26) 서울대학교 글쓰기연구기초 편찬위원회 편, 『글쓰기의 기초』,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김영희 외, 『현대 사회와 비판적 글쓰기』, 박이정, 2013.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사회계 글쓰기』, 태학사, 2016.

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북대와 서울대의 개편 전 교재는 앞서 설명한 전형적인 형식 논리학적 논증 이론 기초한 논증적 글쓰기였는데, 개편 교재에서는 분명하게 비형식 논리학에 기대어 논증적 글쓰기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글쓰기의 기초』(서울대)의 ‘논증적 글쓰기’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이 책에서는 논증을 “어떤 문제에 대해 주장을 내세우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 근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논증의 기본 구성 요소로 주장, 근거(자료, 이유), 전제, 주장의 제한, 반론에 대한 대비를 들었다. 덧붙여 주장과 근거는 논증에 꼭 있어야 하고, 전제는 독자의 배경에 따라 넣을 수 있으며, 주장의 제한과 반론에 대한 예상·대비는 논증의 완성을 높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넣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²⁷⁾ 그리고 주장, 근거-이유, 근거-자료 등의 구분²⁸⁾을 통해 설득력 높은 논증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개편 전 교재에서 보이던 형식 논리적 논증 모형을 완전히 벗어난 내용적 틀이라 하겠다.

『현대사회와 비판적 글쓰기』(연세대) 교재는 ‘문제 해결’이라는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 논증의 절차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이 교재에서는 ‘현상의 발견’과 ‘해석틀의 확보’를 설명한다. 그리고 복잡다기한 현상을 파악한 것으로부터 분석하고자 하거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포착하여 초점화하는 과정, 즉 ‘문제설정’과 ‘문제틀’을 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



• 나는 ~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는 ~ 때문이며(이유) 그 바탕은 ~이다(근거).

<모형 4> 연세대 교재 논증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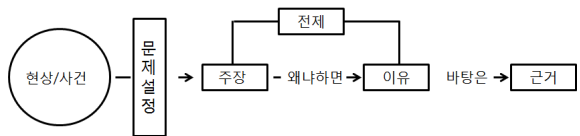
27) 서울대학교 글쓰기의기초 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73면.

28) 기존 책에서는 이유와 근거를 모두 전제라고 설명했지만 비형식 논리학에서는 근거와 이유, 전제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주장) 인간의 생명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아무리 중죄인이라도 국가가 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근거-이유) 많은 선진국에서는 20세기 이후 사형 제도를 속속 폐지해 왔고, 사형 제도가 범죄 예방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 조사도 많이 있다.(근거-자료). 위의 책, 178면.

한다. 문제설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기해야 하는 질문을 크게 주장, 이유, 근거”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관계를 위와 같은 도식으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증 모형 또한 형식 논리학에서 보여주고 있는 논증의 기계적 합리성에서 벗어난, 논증 과정의 합리성에 그 초점을 맞춘 논증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계 글쓰기』(전북대) 교재에서는 주장, 이유, 근거, 전제를 논증의 기본 요소로 설정하고 있다.²⁹⁾ 그러면서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로, 근거를 바탕으로 도출해 낸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또 근거는 이유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 그리고 전제는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보편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북대 교재 또한 연세대 교재와 마찬가지로 글쓰기의 과정을 현실 공간의 문

제를 인식하는 차원까지 확대시켜 논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전북대 글쓰기 교재에서는 <모



<모형 5> 전북대 교재 논증 모형

형 5>와 같은 도식으로 정리·제시하고 있다. 연세대 교재와 마찬가지로 현실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인 ‘현상/사건’과 ‘문제설정’이 전북대 논증 모형의 특징이라고 하겠다.

위에서 살펴 본 세 대학의 개편 교재들은 비형식 논리학의 유산을 이어받아 기존의 논증적 글쓰기의 기계적 합리성 극복하고 논증적 글쓰기의 실제적 지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들 개편 교재에서는 공히 논증의 절차성이 강화되었고, 특히 논증의 절차와 그 구조가 도식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증 모형의 가장 큰 특징은 전제와 이유, 근거가 세분화되고 강조되

29) 전북대 글쓰기는 전공별 글쓰기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교재도 인문계, 사회계, 이공계로 나뉘어 출간되고 있다. 이들 책은 각각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여섯 개의 장은 계열 특성과 상관없는 공통 교과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논증적 글쓰기는 공통부분(5장)에서 다루고 있다.

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도표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논증 과정에서 반론의 수용과 반박을 매우 중요한 절차로 수용·편입시켜 논증 과정을 더욱 두텁게 만들었다.

논증적 글쓰기의 위와 같은 변화는 형식 논리학에 기댄 논증적 글쓰기보다 절차적이고 자세한 논증적 글쓰기의 방법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이 개편 교재들이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형을 동일한 수준에서 이어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세 교재들은 나름대로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형들을 변형시켜 이해·적용하고 있다. 장을 바꾸어서 논증 모형의 변화가 논증적 글쓰기 차원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들 교재가 보여주는 논증 모형의 활용 차이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4. 논증적 글쓰기 교육 분기의 함의와 난점

논증적 글쓰기의 논증 모형 변화 첫 번째 의미는 논증적 글쓰기가 논증 행위와 대화 행위로서의 성격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앞서 논증적 글쓰기는 독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쓰기라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논증적 글쓰기를 문어적 의사소통 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제까지 논증적 글쓰기는 대화적 측면보다는 형식 논리학적 차원의 명제적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다.

그런데 비형식적 논증 모델, 특히 윌리엄스·콜럼의 논증 모형 도입으로 논증 글쓰기는 ‘논증’(argument)이 아닌 ‘논증 행위’(argumentation)에 좀 더 큰 강조점이 놓이게 되었다.³⁰⁾ 논증 행위는 논거를 들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대화의 과정으로, 대화의 참여자는 비판적 사고와 함께 논증의 대화적 성격을 배우게 된다. 이 과정에서 논증 행위가 독단적 사고과정이 아닌 합리적 추론

30) 논증행위(argumentation)란 참여자들이 문제가 되는 주장의 정당성을 주체화하고 그것을 논증을 통해 뒷받침하거나 혹은 비판하려고 시도하는 일종의 대화이다. 위르겐 하버마스, 장준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 2006, 57면.

과정일 뿐만 아니라 언어적이고 사회적인 수행적 과정임을 배우게 된다.

이러한 대화로서의 논증적 글쓰기가 특히 논증의 평가의 기준이 명제의 타당성이 아닌 명제의 수용 가능성의 문제에 놓이게 되면서, 학생들은 좀 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즉, 주어진 조건 안에서 어떤 근거가 더 적절하고 합리적인가에 논증 평가 기준이 놓이게 되면서 학생들은 형식 논리학의 도식성이 주는 부담보다는 수용 가능한 합리적 근거들을 찾아 제시하는, 조금 더 자유로운 논증적 글쓰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논증적 글쓰기의 논증 모형 변화 두 번째 의미는 생각을 만들어 가는 절차적 사고 과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형의 형식은 형식 논리학의 논증 형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논리학의 타당한 논증 형식이 준기하학적인 것이고, 논증구조도의 형식이 결론을 지지하는 전제들 간의 독립, 의존 관계를 도식화한 것”이라면,³¹⁾ 툴민과 윌리엄스·콜럼의 논증 모형은 절차적 형식, 즉 절차성이 강화된 모델이다.

툴민과 윌리엄스·콜럼의 논증 모형은 어떤 논거로부터 하나의 주장을 도출하는 것으로부터 논증 구축이 시작된다. 주장이 도출되면 이러한 주장에 대한 자신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 주장과 이유를 찾으면 그것에 대한 사실적 근거들도 찾아야 한다. 필요하면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전제도 찾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반론 수용과, 반박의 자리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적 형식을 보이는 비형식적 논증 모형은 형식 논리적 논증 모형보다 논증 과정이 더 구체적이고 절차적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는 하나의 생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논증적 글쓰기의 논증 모형 변화 세 번째 의미는 글쓰기 절차와 관련 있다. 절차적 형식성이 강화된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형 도입으로, 글쓰기의 전 과정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강화되고 그와 관련된 글쓰기 교육이 용이해졌다. 개편 교재들에서 ‘논증 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을 제외한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은, ‘문제 설정’과 ‘문제틀’, 그리고 글쓰기 방법의 하나로 ‘배치’ 문제

31) 배한식, 앞의 논문, 160~161면.

를 다루는 부분 정도이다. 글을 쓴다는 행위는 대상을 비판적 시각·창조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적절한 제재를 찾아 자신의 생각을 구현해 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실제로 위에서 살핀 ‘논증 행위’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³²⁾ 글쓰기적 차원에서 보면 논증 모형의 절차적 형식으로서의 변화는 글쓰기 전반에 대한 설명을 쉽고 용이하게 전달할 수 있는 모델로 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글쓰기의 실제적 차원에 논증 설명이 조금 더 가까워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물론 이들 개편된 글쓰기 교재가 비형식 논리학의 유산을 동일하게 물려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 개편 교재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형식 논리학의 내용보다도, 각기 다르게 활용하고 있는 비형식 논리학 논증 내용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비형식 논증의 글쓰기적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개편 교재의 비형식 논증 활용의 차이점을 논증의 기본 요소를 중심으로 나누어 보면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주장	이유	근거	전제	추론	비고
서울대	개념주장 실용주장	근거		전제	연역 귀납 유비 가추	
		이유	자료 (사실, 소견)			
연세대	주장	이유 (판단·의견)	근거 (테이터, 이론)	× (가치기준) ³³⁾	× (인과관계)	문제설정 문제틀
전북대	개념주장 실용주장	이유	사실 소견	전제	연역 귀납	문제설정

<표 1> 논증 요소 대조표

32) 다음의 설명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논증이란 단순히 비판적 사고나 합리적인 설득의 기술을 의미하지 않는다. 글쓰기를 전후한 생각하는 기술, 글을 통해 표현하는 기술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개념이다.” 조셉 윌리엄스:그레고리 콜럼, 운영삼 옮김, 앞의 책, 13면.

33) 연세대 교재는 전제라는 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가치 기준의 설정

먼저 ‘주장’을 살펴보면,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울대와 전북대 교재에서는 주장을 개념주장과 실용주장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개념주장은 독자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주장이고, 실용주장은 독자에게 생각의 변화를 넘어 어떤 행동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주장이다. 연세대 교재처럼 ‘주장’의 성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장의 성격에 따라 글의 구성이나 글의 설명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대와 전북대 교재처럼 주장의 성격을 분명하게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논증 요소 대조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 중 하나가 전제이다. 전제는 논증을 논리에 맞을 내리게 하는 논증의 중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연세대 교재의 경우 전제에 대한 설명이 없다. 물론 ‘논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기준을 설정하는 기준점(실용적·윤리적·심미적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기준점들이 전제의 빈 자리를 완전하게 메꾸지는 못한다.

전제는 논증의 다른 요소만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비형식적 논증에서 논증의 평가 기준이 논증의 수용 가능성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논증은 명제적 타당성이 아닌 얼마만큼 더 설득적이냐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비형식적 논증에 바탕을 둔 논증 글쓰기에서는 논증의 맥락과 전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다. 윌리엄스는 동료들과 쓴 책에서 전제를 유추하거나 제시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데,³⁴⁾ 이 전제에 대한 설명은 논증 글쓰기 교재에서 꼭 설명되어야 할 요소 중의 하나이다.

과 판단하기’라는 내용을 다루면서 ‘전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 34) 이유와 주장을 이어주는 일반원칙을 전제라고 한다. 전제는 보편적 상황과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보편적 결과 두 요소로 구성되는데, 다음 예시와 같이 주장과 이유를 바탕으로 전제를 구성해 낼 수 있다. 러시아는 생활수준이 하락할 위기에 놓여 있다(주장). 그 이유는 출생률이 1.17이고 남자의 기대 수명이 약 58년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이유). ⇒ 한 나라의 노동인구가 축소되면(보편적 상황), 그 나라의 경제는 어둡다(보편적 결과). ‘한 나라의 노동인구가 축소되면, 그 나라의 경제는 어둡다’가 이 논증의 전제가 된다. W. 부스·그레고리 콜럼·조셉 윌리엄스, 양기석·신순옥 옮김, 『학술논문작성법』, 나남, 2014.

이 ‘논증 요소의 대조표’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징은, 논증의 질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소략되어 있다는 점이다. 논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제한된 교재 지면에서 다루기 어려운 상당한 서술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래서 형식적 논증에서 다루는 ‘귀납추론’과 ‘연역추론’으로 형태로 그 내용을 짧게 다루거나, 다양하게 추론 내용을 다루더라도 마찬가지로 짧게 기술될 수밖에 없는 난점이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 논리학에서 말하는 논증의 참/거짓을 구분해주는 도식적·이론적인 추론 설명이 아니라, 실제적인 논증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추론 방법이 적절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위의 ‘논증 요소의 대조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연세대와 전북대 교재에서는 ‘문제설정’ 과정도 논증적 글쓰기의 과정 속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대와 연세대 교재는 그 범위가 다르기는 하지만 문제설정이라는 이름으로 글쓰기의 전 과정을 다루려고 하고 있다. 이는 사고의 마름질 과정을 글쓰기에 포함시켜 보여주는 것으로 수업시간에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두 교재 모두 논증을 구축한 다음에 그것의 배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과정적 글쓰기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문제의식’을 논증 방법과 함께 다루는 것은 적절한 내용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델은 논증적 글쓰기에 매우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논증 요소 대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배치하느냐는 개편 교재마다 상이하다. 아직 비형식 논리학의 논증 모형이 대학 교재에서는 시론적 차원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습이기는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형식적 논증 모델이 대학의 ‘논증적 글쓰기’에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그 의미가 꽤 크다고 할 수 있다.

5. 맺음말

논증적 글쓰기는 글에 대한 감각이 조금은 부족해도, 높은 글쓰기적 성취 혹은 그런 효과를 볼 수 있는 글쓰기 방법 중 하나이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논증적 글쓰기가 합리성과 이성에 바탕을 둔 논증 중심의 글이기 때문이다. 논증의 맥락을 존중하면서, 논증의 절차를 잘 따라가면 다른 어느 글보다도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글쓰기 방법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증적 글쓰기는 ‘쓰기의 전이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글쓰기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근래 논증적 글쓰기의 논리학적 기반이 달라진 글쓰기 개편 교재를 중심으로 그 변화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논증 글쓰기의 중심이 되는 논증 모형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그 의미와 난점도 같이 자세히 살펴보았다. 논증 모형이 바뀐 논증 글쓰기 교재에서 보이는 가장 큰 특징은 논증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타자와의 대화라는 맥락 안에서 이해하려는 모습이었다. 형식논리학에서 보여주는 명제적 타당성이 아니라, 관계에서 형성되는 수용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글쓰기 교재가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글쓰기를 좀 더 넓은 사고의 틀 안에서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변화이기도 하다.

그러나 논증적 글쓰기의 내용 변화가 논증적 글쓰기의 수행적 특징, 절차적 특징, 글쓰기의 전과정적 성격을 강화시켜주기도 했지만, 여러 교재들에서 보이는 선택적 응용과 그로 인한 문제들은 비형식 논리학 활용의 여러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형식 논리학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논증적 글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편 교재들이 보여주고 있는 차이들을 중심으로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글쓰기는 정적인 문자놀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글쓰기는 텍스트에 대한 기본 이해를 바탕으로, 그것이 지닌 성격과 구조를 알고 그것들이 발산해 내는 다양한 지적·심미적 경험 효과를 표현하고 공유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³⁵⁾ 논증적 글쓰기는 절차적이고 도식적인 글쓰기이지만, 이 절차성과 도

식성이 어찌면 많은 학생들을 글쓰기의 최상위 층위로 이끌어 갈지도 모른다.

개편 교재들이 보여주는, 논증적 글쓰기의 방향 전환은 꽤 신선해 보인다. 글쓰기의 실제적인 차원에서도 윌리엄스·콜럼의 비형식적 논증 방법은 매우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된다. 비형식 논리학을 바탕으로 한 논증적 글쓰기의 실제적 수업 운용 방법과 내용은 후속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35) 송주현,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권 1호, 2016, 282면.

참고문헌

- 구자황, 「대학글쓰기 교육의 반성과 전망」, 『반교어문연구』 제36집, 반교어문학회, 2014.
- 구자황, 「학술적 담화 공동체의 삶과 글쓰기」, 『우리말교육현장연구』 7(2),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13.
- 김미선, 「논증적 역사 글쓰기가 비판적 사고력에 미치는 효과」, 『역사교육』 121, 역사교육연구회, 2012.
- 김병구, 「논증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반교어문연구』 27, 2009.
- 김은정, 「대학생의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한 논증적 글쓰기 연구」, 『대학작문』 11호, 대학작문학회, 2015.
- 송주현, 「대학글쓰기에 대한 반성과 발전적 수업을 위한 제언」, 『교양교육연구』 10권 1호, 2016.
- 이영호, 「학습 논술 교육 연구: 학습 과정에서의 논증 능력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12.
- 정희모, 「대학 글쓰기 교육과 과정 중심 방법의 적용」, 『현대문학의 연구』 29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06.
- 조셉 윌리엄스(J. M. Williams)·콜롬(G. G. Colomb), 윤영삼 옮김, 『논증의 탄생』, 홍문관, 2008.
- 이국환, 「전통적 교양과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글쓰기’ 연구」, 『석당논총』 42집,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08.
- 이광모, 「논증문에 기초한 논술이해」, 『동서철학연구』 50호, 한국동서철학회, 2008.
- 이윤빈, 「대학 신입생 대상 ‘학술적 글쓰기’의 장르적 의미와 성격」, 『작문연구』 14권, 한국작문학회, 2012.
- 위르겐 하버마스, 장춘익 옮김, 『의사소통행위이론』, 나남, 2006.
- 최상민, 「논증적 글쓰기의 교육과 평가」, 『현대문학이론연구』 32집, 현대

- 문학이론학회, 2007.
- 크리스티안 플란틴, 장인봉 옮김, 『논증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3.
- 필립 브르통·질 고티에, 장혜영 옮김, 『논증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하병학, 『논증과 권위』, 『철학탐구』 18,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05.
- 현남숙, 『인문학 글쓰기에서 틀민논증의 활용』, 『사고와표현』 3(2), 사고와표현학회, 2010.
- 홍변선, 『글쓰기 교육의 대안적 모델로서 ‘논증적 글쓰기’』, 『철학논총』 53집, 새한철학회, 2008.
- James Crosswhite, 오형엽 옮김, 『이성의 수사학』, 고려대학교 출판사, 2001.
- w. 부스·그레고리 콜럼·조셉 윌리엄스, 양기석·신순옥 옮김, 『학술논문 작성법』, 나남, 2014
- Wesley C. Salmon, Logic 3판, Prentice Hall, 1984. 곽강제 역, 『논리학』, 박영사, 2004.

【Abstracts】

The differentiation and meaning of argumentative writing in education

Baek Eun-chul

As the source of high-tech knowledge transferred from universities to companies in the early 2000s, and the useful life of specialized knowledge shorten was shortened, universities began to turn their attention to liberal arts education as one of the remedies. In this process, writing has been recognized as a way of communication that provides background for the learning as well as for discourse community. As a result, not only the writing has become more vitalized and specialized but developed and differentiated into various aspects.

However, there is one prominent feature the academic writing demonstrates in the process of its development and differentiation, which is that 'argumentative writing' education has been strengthened. It is because the writing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quire the basic abilities such as problem-solving and communication skills that form the basis of academic study.

However, until now, there has been no research that covers the specific contents of 'argumentative writing' published in different writing teaching materials. Accordingly, in this article, we have examined changes and the meaning of the argument models, centering on the teaching material that changed its argument model and which is central to the argumentative writings among other reorganized materials. Also, we looked at the difference in applying each argument model that was proposed.

Key words: argument model, formal logic, informal logic, argumentative writing, Toulmin

이 논문은 2016년 6월 1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6년 7월 5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6년 7월 12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